

하게 하는 데 도움을 준다. 「사회평론」 3월호의 기획기사는 따라서 보수언론과의

별반 차이점을 극복하지 못하는 결과가 되어버렸다. □

은 얼마나 될까요. 그들이 정신대로 동원되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종군위안부로 인식된다면 그들의 가정은 어떻게 될까요.

물론 어느 누구도 의식적으로 위와 같은 과오를 범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양자가 동일하게 인식된다면 가공할 만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과거 그들의 고통을 보상하기 위해 운운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도 없을 것입니다. 보상은커녕 오히려 새로운 고통을 주지 않는 것이 옳은 일이 아닐까요.

정신대와 종군위안부는 제도적으로 엄연히 다른 것입니다. 따라서 양자는 엄격히 구별되어 이해되어야 합니다. 물론 정신대로 동원되었다가 예외적으로 종군위안부로 진출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여 그것이 양자를 혼동해도 좋을 근거로는 되지 않습니다. 종군위안부와 근로정신대가 어떻게 다른가 하는 점은 「한국일보」 1992년 2월 22일 석간의 줄문에서 밝히고 있으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종군위안부와 근로정신대를 구별해야

안병직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

관생(冠省). 「사회평론」 3월호에 게재된 「정신대, 영원한 십자가」는 반갑게 읽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젊은 여성들 중에 과거 우리 민족의 아픔을 자기의 아픔으로 느끼는 사람이 있다는 점에서 스스로의 일을 다하지 못한 선배로서 그저 감사할 따름입니다.

그러나 나는 다른 한편 그 글을 읽고 어떤 절망감 같은 것을 느끼기도 하였습니다. 그것은 우리 젊은이들이 정신대문제에 대하여 이렇게도 모르고 있구나 하는 점입니

다. 하긴 최근 도하의 각 신문들도 근로정신대와 종군위안부를 구별하지 못하고 있으니 젊은 여성들이 그럴 수 밖에 더 있겠느냐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만…….

그 글을 쓴 기자는 혹시 근로정신대와 종군위안부를 구별하지 않음으로써 오는 피해에 대하여 생각해본 적이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추측하듯이 만약 우리나라 여성 중 정신대로 동원된 사람이 20만 정도라면 그들 중에서 살아남아 현재 정상적인 가정을 꾸리고 있는 사람